

# '건강 꾸러미'로 농산물 제값 받기 성공모델

## 농협, 새 희망을 연다

### 광주 평등농협

도심 속 작은 농촌형 마을인 광산구 평동. 주변의 산단개발로 과거의 농촌 풍경은 사라진지 오래지만 40여년 한 자리에서 꿋꿋하게 농촌과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평등농협(조합장 김익찬)이 있다. 평등농협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대의 흐름에 맞서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APC(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성공적인 변신을 꾀한 선진 농협이다.

자산 1200억원 규모의 '미니농협'인 평등농협이 농촌형 농협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신사업이 아닌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경제·교육 사업에 매진한 결과다. 아심차게 추진한 '빛찬들 안심꾸러미' 배송사업의 힘도 컸다. 안심꾸러미란 지역에서 생산된 여러 품목(10종 내외)의 제철 농산물을 하나의 꾸러미로 포장해 회원들의 가정까지 주기적으로 직접 배송해주는 직거래사업이다.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소비자 회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양자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방식이다. 회원이 되면 무농약 키위, 표고버섯, 특수 쌀 등 GAP(농산물품질관리제)이상의 친환경 농산물을 당일 수확해 하루 안에 신선한 농산물을 받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평등농협은 앞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 2억5000만원의 연 매출을 올릴 목표를 세웠다.

APC 활성화로 경제사업 효율성 극대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노령농가가 많고 시설 채소 생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농산물 유통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평등농협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공선출하회 운영이다. 10여년 전부터 토마토 공선회를 결성해 제값받기에 주력했다. 덕분에 맛 좋고 품질이



평등농협 임·직원이 생산 당일 APC(산지유통센터) 공선회 작업을 통해 포장된 대추토마토 등 출하품을 들여보이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 신선 농산물 꾸러미로 포장 회원 가정까지 주기적 배송 유통 혁신·농가 소득 증대 견인 매년 장학·복지사업 전개도

균일한 '평등 빛찬들 토마토'를 명품반열에 올릴 수 있었다. 또 농가에게 돌아가는 수익금도 10~20%가량 높아졌으며 인근 농가들의 판로까지 확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난해 90명의 농가가 토마토 공선출하로 올린 실적은 27억원에 넘어섰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등농협은 잇따라 가지·애호박 공선회를 출범시켰으며 매년 참여 농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농가 19명이 공선출하로 매출 7억원을 올렸다. NH무역과 손잡고 토마토와 가지를 품종에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22t 이상 1억5000만원 어치를 수출한다는 목표다.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지도·지원사업도 모범적이다. 평등농협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대는 지난해 지역 농협청년부와 함께 영농회별로 토양지력을 회복하고 농산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규산질비료 살포에 나서는가하면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고령조합원을 위한 효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효한마당 행사에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낮춰,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역시 조합원 자녀 21명에게 총 25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주축이 되어 펼쳐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봉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승근 평등농협 상무는 "지속적인 안심꾸러미 회원모집을 통해 광주의 우수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위기의 농촌을 살리는 농촌형 농협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귀농인 55%는 1년이상 준비"

### 농촌진흥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애로사항 1위는 '자금 부족'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에 정착한 사람 가운데 55%는 1년 이상 귀농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의 귀농·귀촌인 1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한 결과, 55.2%인 552명이 '귀농을 위해 1년 이상 준비했다'는 답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년 이상'이 21.4%, '1~2년' 19.7%, '2~3년' 14.1% 순이었다. 반면 '준비 기간이 없었다'는 응답은 9.2%로 매우 낮았다.

귀농·귀촌 이전 직업은 자영업자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직 18.3%, 행정·경영·관리자 11.7%, 기능직 9.8%, 판매 서비스직 7.6% 등이었다.

귀농·귀촌 이유로 '조용한 전원생활을 위해'(3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도시 생활에 회의감을 느껴'(24.8%), '은퇴 후 여가 생활을 위해'(24.3%), '새 일자리나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위해'

(22.2%) 등 답변도 나왔다.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여유 자금 부족'(47.2%)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영농 기술 습득'(27.4%), '농지 구입'(25.5%), '생활 여건 불편'(23.8%), '지역 주민과의 갈등'(16.1%) 등도 거론됐다. 귀농·귀촌 후 주요 경제 활동으로 '농업에만 전념'(40.2%), '농업과 다른 경제 활동을 겸업'(35.8%), '농업 이외 다른 분야 경제 활동에만 종사'(13.3%), '은퇴 또는 무직'(10.6%) 등의 응답이 나왔다.

귀농·귀촌에 대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45.4%, '실패했다'는 평가(5.1%)를 크게 웃돌았다. '아직 모르겠다'는 답은 49.6%였다.

도시로 다시 이주할 의향을 묻자 72.1%가 '없다'고 답했다.

최윤지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귀농·귀촌인이 농업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로의 진입과 농촌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 벗짚 꼬기 재미 있어요"

### 전남대 외국인 대학원생 20명 농협전남본부 농촌 현장투어 참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전남대 경영대학원 외국인 대학원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현장투어를 실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현장투어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산지유통센터, 미국종합처리장 견학과 농촌체험마을에서 계란꾸러미 엮기, 전통약과 만들기 체험 등 농경 경제사업장 견학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현장투어 참가자들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 14개국 농업 관련 중견 공무원과 교사로 전남대 경영대학원에서 '한국 새마을 운동의 이론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MBA 석사과정을 받고 있

다. 전남대 인솔자인 김정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을 자국 농업개발의 롤 모델로 삼고자 현장투어를 신청했다"고 밝히고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우리보다 농업발전이 뒤쳐진 개발도상국 등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선진 농업·농촌문화를 알리기 위해 본 행사를 실시했다"

며 "앞으로도 외국인과 국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소득 증대 위해 조합원과 아름다운 동행"

### 김익찬 조합장

"신용사업으로는 농협이 살기 어렵습니다. 협동조합의 원래 취지를 잘 살리고 조합원에게 이득이 되는 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로 평등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김익찬(61) 조합장은 "경제사업의 활성화로 조합원의 실익증대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애써 키운 토마토와 가지가 제

값을 못받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때 맘이 아팠다"며 "이러한 농민들의 애로를 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APC(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해 농협을 살리고 유통 전문가 영입과 선진적 견학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하나마트를 로컬푸드 직매장과 생필품 판매를 겸하는 복합마트로 확장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 조합장 또 "농협은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 농협의 주축인 시설채소 농가를 잘 조직화해 작물 키우는 방법과 판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며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조합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척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정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세하동 생산녹지 답 2,400㎡ 매 5.7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 해남바다

### 접한 펜션주택지

-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 ▶매가: 평당 15만원 (대+전)
-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 해남 귀농

### 최고의 펜션

- ▶연소득: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 ▶장소: 해남읍서 대흥사 가는길목
-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 ▶건평: 주택4동+캠핑카
-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주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면적: 3071평방미터 (계획관리)
- ▶면적: 4509평방미터
- ▶매가: 9천만원
- ▶매가: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 하수오 종자 분양 및 판매

### 16년을 한결같이 이어온 명약농원의 적하수오!!

재배·분양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경제성이 탁월하고 재배방법이 비교적 쉬운 적하수오!!  
어려운 경제상황의 활력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 1년생 분양가 1주당 1,000원	● 구중구포 절편 200g 40,000원
● 2년생 분양가 1주당 2,000원	● 600g 120,000원
● 생물 절편 300g 40,000원	● 환 1kg 360,000원
● 600g 80,000원	● 생물 1kg 100,000원

**영농조합법인 명약농원** ☎(061)374-6363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08-2 010-2632-7799